

# 목포시 백년로 '메디컬 스트리트'로

〈전남도청~목포경찰서 교통센터〉

전남도청입구 사거리와 목포경찰서 교통센터를 잇는 목포시 백년로에 '메디컬 스트리트'(의료관광 특화거리)가 조성될 전망이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백년로 거리를 '의료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해 중국 관광객(旅客=유커)을 대상으로 한 특화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총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전남도 추경예산에 1억원을 세워 조만간 공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관광은 의로서비스와 관광서비스가 결합된 일종의 특화 관광 상품으로, 수익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블루오션 서비스산업이다.

목포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당위성과 지역의료계 반응, 향후 추진방향 등을 살펴봤다.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의 당위성=하당 신도심을 관통하는 백년로에는 목포의 대표적인 의료기관들이 밀집해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백년로 가운데 광장주유소~소방서 사거리까지 1.6km 거리 내에 목포 기동병원과 동신대 한방병원, 한사랑 병원 등 병원급 이상 4곳, 피부과 2곳, 성형외과 2곳, 이비인후과 2곳, 한방 7곳, 치과 8곳, 안과 3곳 등 32개의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다.

특히 의료관광은 의료뿐만 아니라 '호텔+음식+관광+쇼핑'이 모두 결합된 산업이라는 점에서 백년로 반경 2km 내에 이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 무안공항 환승공항 지정(2013년 2월)과 무비자 입국(5월)에 따른 중국 관광객이 지난 2013년 2만4000명에서 2014년에는 3만2000명으로 증가하는 등 올해는 5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밀려드는 '유커'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장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이 2012년 15만명, 2013년 21만명, 2014년 25만명에 달한다. 주로 찾는 진료과목은 내과, 검진센터, 피부과, 성형외과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중 러시아·중국인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다음달 호남선 KTX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접근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무안공항을 이용해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들을 끌어들이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 의료계 반응=전남도와 목포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2월 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당지역 병원장 32명 모두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병원장들은 의료기관 추진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및 보건복지부 해외환자 유치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목포 기동병원 위희수 원장은 "보건의료산업은 지속발전이 가능한 산업으로 향후 전망이 밝다. 오는 4월중에 추진협의체(의료계, 관광업계, 숙박업계, 관

광학과 교수 및 전문가 참여)를 구성하겠다"며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메디컬 스트리트 어떻게 추진되나=서남부권(목포 백년로 메디컬 스트리트 중심)을 비롯해 서중부권(전남대 화순병원 중심), 동남부권(여수 애양병원, 백병원 중심) 등 권역별로 추진한다는 게 전남도의 의료관광산업 육성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다도해 섬, 서남해안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접목한 볼거리·즐거거·먹거리 등을 연계시키고 의료관광 클러스터 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인력 개발원과 연계해 의료 코디네이터와 통역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숙박·메디칼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영상과 책자 등을 통한 다국어 홍보물 제작, 해외관광 박람회 연계 홍보, 현지 설명회 개최 등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및 유사업체 정보, 예약 및 상품 안내, 출입국 윌스톱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 안내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백년로 메디컬 스트리트를 '경증진료+성형+미용+관광'이 가능한 의료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50억원(국비 30억, 지방비 20억원)으로, 주요 사업은 홈페이지 제작·홍보, 의료관광 전문가 양성, 상품 개발, 가로경관 조성 등이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2016년 25억원, 2017년 15억원, 2018년 10억원이 투입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부산광역시 진구 서면에 '메디컬 스트리트'가 조성돼 지난해에 1만5000명의 의료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백년로에 '메디컬 스트리트'가 조성되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남도의회 강성취 기획복지위원장(목포)은 "무안공항이 환승 공항으로 되면서 목포~제주권이 주요 루트로 떠올랐고,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관광이 가능성이 있다는 반증이며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했다.

목포=임영준·고규석 기자 lyc@

## 목포시, 2년연속 청사 에너지절약 최우수기관 선정

목포시가 2년 연속 청사 에너지 절약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8일 목포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지방자치단체 청사 에너지절약 평가'에서 전국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37억 4000만원을 보훈교부세로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청사 에너지 절약 포상금으로 총 110억원을 받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에서 전 직원이 친환경 그린 청사를 모토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 에너지(전기·연료) 절감률 44.53%를 기록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청사내 전등 2분의 1 소 ▲청사 화장실·복도·계단 등 마이크 로 센서 부착 ▲본관동 고효율 냉방용

냉동기 교체 ▲개인용 전열기 사용 금지 ▲피크 전력 제어 및 냉·난방기 중앙제 어시스템 설치 ▲시정 야외주차장 태양 광 발전장치 설치 운영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시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병술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시책과 함께 야외주차장 등에 6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해 청사 전력으로 대체 활용하고, 노후된 전기시설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문학회 4개월 과정 문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목포문학회이 작가를 꿈꾸는 성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문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개설된 프로그램은 ▲문예대학 창작반 ▲어린이 문학교실 ▲저학년, 고학년반, 시낭송반 등 3개 반으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과정이다.

문예대학 창작반은 195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돼 등단한 후 제1회 한국연극영화예술상(1965년)과 제2회 만해문학상(1975년) 등을 수상한 희곡 '만산'(滿山)의 작가인 목포 출신 천승세 소설가가 직접 지도한다.

또 주 5일 수업으로 토요일을 특별하

게 보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창작 위주의 글쓰기 수업 '어린이 문학교실'과 자신감을 길러주는 '학생 시낭송반'도 4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문학에 관심이 있는 성인교과과정과 차별화된 글쓰기 교육을 원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수강료는 문예대학 창작반 2만원, 어린이문학교실 4만원이다.

목포문학회의 문학 교육프로그램은 현역 작가들의 전문적인 문학창작 지도로 꾸준한 수강생 관리를 통해 문학 후학을 양성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돼 그동안 많은 호응을 받아왔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생산기반정비 사업 최우수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박종호)이 최근 2014년도 생산기반정비 사업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영산강사업단은 영산강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으로 지난 1972년 I 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III·IV 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32억의 수자원을 확보해

해남군과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일대 농경지에 영산강의 여유수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만8000ha의 간척토지를 확보해 3만1072ha의 국토확장 효과

가 있는 사업으로 이 지역발전에 정량

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을 준공함으로써 이상 강우에도 영산강과 전남 서남권의 농경지를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현재는 III지구 4개 공구, IV지구 5개 공구로 540억을 투자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박종호 영산강사업단장은 "직원과 공사현장간 상호 믿음과 신뢰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로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시는 동신대학병원(왼쪽)과 기동병원 등 대표적인 의료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백년로에 2018년까지 '메디컬 스트리트'를 조성하기로 했다.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지리지사	시내지국
광신 062944-0444	광천 366-8375
군산시 063467-2500	광부 222-9440
정읍시 063531-5544	광동 852-0175
	광명 264-2012
	광동 222-9054
	광동 225-6001
	광문 267-4748
	광백 673-4688
	광선 675-5536
	광북 525-3761
	광상 372-2382
	광서 369-0583
	광하 676-6605
	광신 612-1732
	광안 571-7658
	광오 366-7601
	광우 522-7752
	광운 512-8116
	광운 371-6818
	광월 961-2339
	광중 222-7896
	광중 224-6604
	광진 673-1800
	광침 973-2900
	광창 214-8212
	광치 376-6511
	광임 682-8112
	광하 959-1800
	광화 375-9662